

“예금자 모셔요” 은행, 예대율 규제에 수신 확보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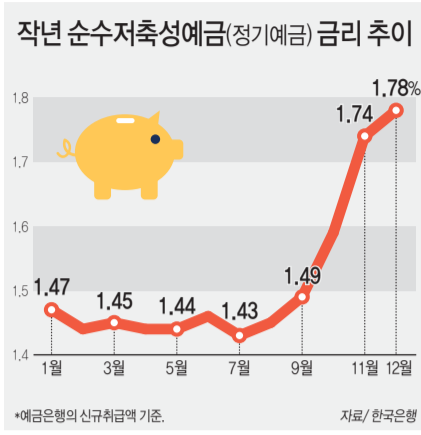
금융당국, 올 하반기 규제 시행 은행들, 자기자본비율 확충에 수신금리 인상·예적금 특판도

은행들이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수신 고객 유치에 나섰다. 향후 기업 대출 확대에 예대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예수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하기 때문. 이에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특판을 실시해 예금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순수저축성 예금(정기예금)의 금리는 지난해 1월 1.47%에서 12월 1.78%로 0.31%포인트 뛰었다.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는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1.25%)로 떨어진 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1% 초중반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월에도 1.47%를 시작으로 9월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10월에 1.59%, 11월 1.74%까지 뛰다가 11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리면서 12월엔 1.78%까지 올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가 예고돼 있어, 은행들은 당분간 수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을 옥죄고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대율 규제를 시행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다.

이번 규제는 은행권의 예대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비중



(왼쪽부터)Sh수협은행이 2월 1일부터 두 달간 연 최대 2.6%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마니드림 특판’을 실시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모집금액에 따라 최대 연 2.2%의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각사

는 15%까지 낮추는 게 핵심이다. 가계대출은 억제하는 대신 혁신·생산적인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비중이 큰 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져 추가적인 자본확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규제로 은행권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이 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기준 전 은행권의 평균 예대율은 96.8%로, 이번 개편 방안이 적용되면 현행 규제 수준인 100%에 가까워지거나 일

부는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은 우선 예수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해 예금 고객을 유치하는 추세다. 특판(특별판매)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Sh수협은행은 2월 1일부터 두 달간 연 최대 2.6%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마니드림 특판’을 실시한다. 최대 연 3.5%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독도사랑 학생적금특판도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3월 2일까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일반법인인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반기 고객감사 특판 예·적금’을 판매한다. 특판 예금은 연 최대 2.

40%, 특판 적금은 연 최대 2.65%의 금리를 제공한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청소년 고객을 위해 5일간 최대 연 3.0%를 제공하는 봄맞이 적금이벤트로 한다.

경남은행은 오는 28일까지 모집금액과 계좌수가 늘어나면 우대금리도 높아지는 ‘투유공동정기예적금’을 판매한다. 예금의 경우 기본금리 1년 이상은 연 2.0%, 2년은 연 2.1%에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은 3년 이상 가입 시 기본금리 연 2.3%에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0일까지 모집금액에 따라 최대 연 2.2%의 금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구매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연말엔 예·적금 단기가 도래해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판을 실시하고, 1월엔 새해맞이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며 예금자를 모은다”며 “올해는 하반기부터 예대율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전보다 예수금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절적 이슈 등과 관계없이 금리 인상이나 특판 등을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설 연휴 은행업무 이동점포 이용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서 11개 운영 현금 입출금·신권 교환 등 업무 일시중단 예고한 우리銀 ‘정상화’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은행 업무를 봐야 한다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 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또 저축은행은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하기 때문에 연휴 이전에 업무를 봐둘 필요가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지방은행은 설 연휴 기간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1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대부분의 은행이 14~15일 이동점포를 통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제공하고, 세뱃돈 등을 위해 신권 교환을 해 준다.

KB국민은행은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KTX 광명역 1번 출구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 KEB하나은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관령 환승 주차장과 양재 만남의 광장(하행선)에 이동점포를 둔다. 우리은행은 14일에만 여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동점포에서 환전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 연휴기간 이동점포 운영 현황〉

은행	위치	영업일자
우리	여주휴게소(하행선)	2.14
KB국민	KTX광명역 1번출구	
신한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	
KEB하나	경부고속도로 양재 만남의 광장(하행선)	2.14~2.15
	대관령 환승 주차장	
농협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하행선)	2.14~2.15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	
IBK기업	덕평휴게소	
부산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하행선)	2.15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역광장	
대구	중앙고속도로(상행선)	2.13~2.15

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하행선)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하행선)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IBK기업은행은 덕평휴게소와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하행선)에서 14일엔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15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부산은행은 15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역광장에서 이동점포를 둔다. 대구은행은 13~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고속도로(상행선)에서 이동점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일부 은행은 입·출금, 송금·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45개의 탄력점포도 운영한다. 탄력점포는 지역 특색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일반 점포와 영업시간을 바꿔서 운

영하는 점포다.

설 연휴 기간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곳도 있다.

모든 저축은행(79개)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체크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다만 선·후불 교통카드는 이용 가능하다.

애초 우리은행도 연휴 기간 같은 이유로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나, 고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전 서비스를 평소처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연휴에 해외송금이 중단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서류제출도 안 된다. /채신화 기자

NH농협금융, 2018 이사 워크숍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에서 ‘2018 NH농협금융 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환 회장을 비롯한 금융지주 전 계열사의 이사들과 농협은행장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주 설립 후 최대 손익 달성에 대한 이사회의 노력과 기여에 감사하고, 올해 손익목표 1조원 달성을 통한 선도 금융그룹 도약을 위해 실시됐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 전 이사진에게 NH농협금융의 경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글로벌 ▲범농협 시너지 ▲고객자산가치 제고 등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농협금융의 존립과



지난 12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에서 열린 ‘2018 농협금융 이사 워크숍’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이 향후 경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치를 통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은행 직원들이 고객맞이 인사를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고객과의 소통 최우선… 고객만족 실천 다짐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행복가치 실현을 위한 CS(고객만족)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지난 2일 “고객 관점의 혁신적 사고와 서비스 마인드 구축으로 고객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서비스 다짐문인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을 개정했다.

“고객에게 드리는 우리의 다짐”에는 “언제나 고객의 관점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심을 담아, 밝은 표정과 활기찬 목

소리로 고객을 가족처럼 대하며, 신뢰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행복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부산은행의 각오를 담았다.

또 매일 업무시작 전, 영업전 직원들이 함께하는 ‘고객맞이 아침인사’를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의 불편은 바로 개선하겠다”는 고객과의 소통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고객중심 마인드의 확산과 고객감동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CS 하이터치 리더’를 공모·선발했다.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통합 앱 ‘쏠’ 출시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은 통합 슈퍼앱 ‘쏠(SOL)’ 출시를 기념해 오는 19일부터 5일간 매일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한 쏠(SOL)의 쏠쏠한 선물대잔치, 고고고’ 이벤트는 ▲‘신한SOL’로 삼행시 짓고 ▲‘신한SOL’의 빅모델을 알고 ▲‘신한SOL’이 기능이 좋고 ▲‘신한SOL’ 광고영상 보고 ▲‘신한SOL’ 앱을 다

운로드 후 인증샷 찍고 등 5개 테마로 진행된다.

신한은행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치킨·피자쿠폰, 외식상품권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 3회 이상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보너스 경품도 준다.

당첨자 발표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